22호
2019.3.12

하비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2:15***

"Where is your integrity?????"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업인이자 최고의 투자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워렌버핏은 함께 일 할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째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둘째 똑똑한 사람인가? 그리고 셋째 진실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셋을 다 가진 사람이면 좋겠지만 이 중 하나만 꼽으라면 세 번째 진실한 사람을 쓰겠다고 합니다. 세상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원하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만한 위치에서 투자의 귀재라는 이름으로 통찰력을 발휘하겠지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실하길 원하시지요. 선교사가 살인이나 간음을 했다고 하면 모두들 충격을 받고 본인도 고개를 들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거짓말은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십계명의 아홉 번째로 거짓말하지 말 것을, 그리고 열 번째로는 욕심 부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일삼고 남의 것을 탐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선교사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사역지에도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작은 것 하나 얻기 위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빼앗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진실한 사람보다는 똑똑하고, 교회와 사역에 열심인,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는 성도, 사역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도 통하는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한 가치를 잃어가는 듯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들을 자주 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선교사, 목사들이 대다수인 이곳에서 진실한, 신뢰할만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현실.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 선교사라는 말은 듣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한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는 건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묵묵하게 그리고 이름 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와 이 선교지를 받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합니까? 거짓과 탐욕, 교만과 자기 의로 쓸어 담은 사역의 결과물, 그 인기와 명성에 만족합니까? "Where is your integrity???"

그리고.....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이를 먹어가나 봅니다.

이상하게도 저희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 젊지 않지만 사역 경험이 아직 짧은 사역자들이 저희 주변에 자꾸 모여 드는 거 보면 저희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세우고 돌보는 일들이 참 즐겁습니다. 그들이 더 멋지게 자라가고 훌륭한 모습으로 세

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선생이야 말로 한다지만 강선생은 음식도 해야 하고 늘 섬기느라 더 힘들 텐데도 강선생은 힘든 줄 모르고 항상 일을 만듭니다. 주로 강선생이 초대합니다. 이선생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이선생도 옆에서 묵묵히 청소와 설거지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마더와이즈

제 3기 마더와이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인들과 사역자들 11명이 참석해서 매주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은혜로운 나눔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강선생은 밤을 새워가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 마다 눈물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을 떠나 예배에 목말라 있고 말씀을 배우고 나눌 기회가 제한적인 이곳에서 마더와이즈라는 모임을 통해 여성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집트인 모임.

'유세프' 라는 친구가 한달 전에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이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 터라 가끔씩 있는 단속에 걸린 듯합니다. 8일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3500디나(오백만원 가량)의 거금을 벌금으로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반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큰 액수지만 그렇게 있다가 추방당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벌금을 내고 계속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융통을 해서 냈다는데... 저희는 돕지 못했습니다. 돈이 연관되면 관계가 깨지는 일이 많기에....

'유세프'는 유치장에서 나온 뒤 모임에도 오지 못하고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서 며칠을 지내서 몸이 상한 거겠지요... 그래도 괜찮다면서 밝게 얘기하는 모습이 안쓰럽습니다.

고된 일에 몸상하지 않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이삭과 마지드가 이집트 가족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원 사역

지난 달, 두 명의 아랍인 선생님이 충원 돼서 총 9명의 선생님과 한국인 사역자 다섯 가정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30명 가량의 사역자들이 센터에서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사역자들에게 맞는 새로운 언어 과정을 만들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얼마 전 요한복음을 읽는 수업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A'와 'R'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 준비의 일환으로 이선생과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요한복음을 알고 싶다며 먼저 요청을 해 온 것이기에 못 이기는 척 시작을 했지요. 선생님들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면 이선생이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공부를 한지 한 달 쯤 지나면서 A와 R는 말씀으로 인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슬림인 자신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거지요. 급기야 선생들 여러 명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다가 굳이 요한복음을 언어과정에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선생들 사이에 생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일이었지만 강선생이 상황을 잘 수습 했습니다. 서로 진실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읽기는 학생들의 언어 필요에 의해 추가된 것이지 우리가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개종을 목적으로 시작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공부가 시작이 됐지만요.. 뭐 의도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강선생이 원래의 목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설명한 후에 선생들도 불만이 잘 해결 돼서 요한복음 읽기 과정은 그대로 가기로 했구요. 성경공부도 계속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H'

'H'는 시리아 출신의 아랍어 선생님입니다. 제 작년에 다른 언어센터에서 아랍어를 배우며 알게 된 후에 강선생이 계속 만나면서 교제를 해 왔습니다. H가 작년에 쌍둥이를 조산했습니다. 6개월 만에 태어난 두 명의 아기들 중 딸아이는 죽고 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나와서 지금은 많이 건강해진 상황입니다.

강선생과 다른 두 명의 한국선생님이 H와 꾸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H는 강선생을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강선생이 만날 때 마다 격려의 말씀도 해 주고 엄마로써의 역할과 아이 양육에 대한 조언 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공식 마더와이즈를 하고 있지요. 마음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H 남편도 강선생은 믿을만한 사람이라며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H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다 가곤 합니다. 시간을 갖고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H와 아기 남편,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 모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저희 파송교회인 '성광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이곳 요르단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선교사들과 담임목사님 등 총 20명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벌써부터 저희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오늘 부터 '어 성경이 읽어 지네' 강의도 시작되었습니다. 13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정권사님과 많은 준비와 기도로 섬겨 주시는 성광의 전강팀 모두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12월에 저희 가정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많은 분들을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이주 남짓 시간동안 너무나 큰 사랑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항상 받는 인생인 듯 하여 죄송스럽지만 이곳에서 베풀고 섬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제목

1. 문화원 사역자들의 연합과 한국인 사역자들을 위한 아랍어 프로그램이 잘 정착되어 사역자들이 언어를 잘 배우도록.

2. 문화원의 무슬림 선생님들의 열린 마음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위해.

3. 'A','R'와 함께하는 요한복음 성경공부를 위해.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4. 이집트 형제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5. 'H'와 그 가정을 위해. 만날 때 마다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6. 선교사 모임이 은혜 가운데 마쳐지도록

7. 건강, 안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